



‘군산조선소 재가동’ 범시민 활동 펼친다

정치권·학계·기관·민간 단체 각계 인사 총망라 대책위 구성 재가동 위한 연구·자문 등 활동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도 논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군산지역의 범시민적 활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16일 지역인사들이 참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시민대책위원회에는 정치권, 학계, 유관 기관, 지역 민간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총망라될 예정으로, 군산시는 대책위원회 활동계획,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책위는 구성된 뒤 군산조선소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방안 연구, 협의·자문, 대내외 활동 등을 맡고 가동 때까지 조선업 유지 및 협력업체·근로자 지원방안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건조물량 부족과 조선업 침체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1일부터 세계 최대의 130만t급 도크와 1천650t급 콜리엇 크레인 등을 갖춘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지역 경제는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2010년 문을 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는 지역 경제의 24%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책임졌던 ‘알짜배기’ 공장으로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1조원 안팎씩 총 4조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이 때문에도 산업, 특근 등을 마치고 나온 5000명이 넘는 직원들로 조선소 일대 식당가와 먹자골목 주변은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북적거렸다.

하지만 현재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협력업체 50여 곳이 문을 닫고 근로자 5000명 가량이 실직하는 등 공장 가동

중단으로 근로자의 대량 실직과 협력업체 줄도산이 현실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을 심의·확정했지만 재가동은 제외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각계 인사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지금의 위기를 대처하고 재가동 방안과 향후 재가동에 대비한 사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여름엔 역시, 무안 연꽃축제”

제 21회 행사 성황리에 마쳐 차별화된 지역축제 자리매김

무안 연꽃축제(8월 12~15일)가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보이며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에서 열린 제 21회 무안연꽃축제는 광복절 연휴와 무더위에 비까지 내린 곳엔 날씨에도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여름 축제로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을 알리는 개막행사로 손색이 없었고 열음 물길 체험, 열음 이글루, 열음 음 조각 퍼포먼스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아이클론’도 더위를 식히는 데 필요한 시설로 인기를 끌었다.

소망등 달기 행사도 관람객들의 호응이 잇따랐고 지난해 문을 연 오토캠핑장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잇따랐다.

축제기간 열린 ‘황토골 무안요리경연대회’는 지역 특산품인 낙지와 연, 양파를 재료로 고유의 맛을 살린 특색 있는 요리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박준수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더 나은 무안연꽃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임동현기자 jdh@

세계 여성 리더들 군산에 모인다

30일부터 한민족여성네트워크

전 세계 여성 리더들이 군산에 모인다. 군산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군산시 새만금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 17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재외 한인 여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취지로, ‘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역할, KOWIN 미래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120개국 주재 공관의 추천을 받은 30여 명의 여성 리더를 비롯, 차세대, 국내 여성 단체장과 직능단체장, 여성인재 아카데미 추천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첫날은 개회식과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토크 콘서트,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 환경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삼성의 새만금 7조 투자 협약 전북 민심 달래기 정치쇼였나

전북도의회 “LH 경남 이전 반발 무마용 ... 5년 뒤 투자 포기”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협약(MOU)은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쇼’라는 전북도의회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은 지난 2011년 전북도, 총리실 등과 새만금에 7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이후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다가 5년이 지난 지난해 투자 포기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을 불러왔었다.

16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삼성 새만금 MOU 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개월간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에 참여한 김관주 전 도지사 등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와 국무총리실과 삼성을 방문해 면담한 결과를 종합,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당시 협약을 주도한 것이 전북도와 삼성이 아니라 총리실이라고 판단했다. 총리실이 협약을 주도한 것은 동남권 신공항 무산으로 민심이 요동치는 경남에 전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도주주택공사(LH)를 주는 대신, 정부의 미움을 받는 삼

성을 압박해 전북에 투자 MOU를 체결해(전북) 민심을 무마하려는 의도였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당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예정됐던 LH가 경남으로 옮겨가기로 하면서 전북도지사가 사발하고 연일 도민설명대회가 열리는 등 역시 극도로 격양된 전북의 민심을 가라앉히려 ‘삼성 투자’ 카드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 투자협약에 극소수 인원 참석 ▲ 7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삼성의 허술한 투자계획서 ▲ 총리와 삼성 대표 등 핵심 인사 MOU 불참 ▲ 협약 이후 후속 조치 전무 등을 들어 MOU가 민심 달래기용 정치적 쇼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부연했다. 특위는 “진실을 명확히 밝히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정황과 일부 사실이라도 밝혀냄으로써 도민이 삼성의 투자협약 전반에 대한 진실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강진군 강진군수(왼쪽에서 네번째) 등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후 화이팅을 외치며 기뻐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매니페스토 청년문제 해소분야 최우수상

전국 기초자치단체 우수사례

강진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기초자치단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년문제 해소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청년지방자치, 혁신과 지방분권’을 주제로 지난 9일부터 이틀간 단국대 전일캠퍼스에서 열렸다.

강진군은 ‘기업 2세 중심 강진 청춘어람 프로젝트’ 사례를 응모, 인재 양성 및 청년취업 2세 육성, 청년층 자치활동 활성화 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해당 분야 최고점을 받았다.

특히 기업을 이어받은 2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성공담을 발표, 심사위원을 비롯, 행사 참석자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청춘어람 프로젝트’는 청년층의 자치 활동을 활성화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강진군민자치대학과 귀농사관학교 등을 통해 청년 인재와 청년 농부를 양성하고 기업 2세들이 명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강진원 군수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으로 만들기 위해 청년 주거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강진이 희망이 많은 지역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지리산담 백지화 위한 제 3회 ‘모깃불문화제’

19일 남원시 토비스야영장

유유담은 2011년 12월에 명승 지정이 예고됐으나 지리산담 건설 예정지라는 이유로 최근까지 명승 지정이 미뤄지고 있다.

행사에서는 경북 영주명 건설로 사라져 가는 내성천에 대한 영상 상영, 기타리스트 공민성과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의 공연, 주민 장기자랑 등이 진행된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북하면 백양사 인근 성암리 전 2803㎡ 분할가능 1억4천
- 순창군 인계면 읍에서 5분거리 대지 1302㎡ 마들도 좋은 7천만원
- 장성 북이면 백양골게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는 1억1500
- 완도 약산면 득암리 해수욕장점 2481㎡ 별장적합 2억4천
- 곡성 옥과읍 죽림리 대지 311㎡ 은행 2500 매도 5500
- 완도 약산면 해안가 대지 617㎡ 팬션을 주택과 낚시배 1억 1500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찰도 적합 5300만원

주택·원룸·오피스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지 495㎡ 주택 154㎡ 은행 1억3천 매도 2억7천
- 완도 고금면 땅 2672㎡ 주택 137㎡ 전원생활적합 1억8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양동 월산파출소부근 상업지역 367㎡ 건물신축적합 4억9천
- 고흥 통일면 6891㎡ 펜션있고 요양시설·연수원 등 적합 10억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성리 14479㎡ 담양호 인근 1억7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곡리 산 70487㎡ 11억 7천
- 공정적합 담양 봉산면 재월리 3501㎡ 1억1500만원
- 담양 금성면 42900여㎡ 전원주택단지 적합 도로좋은 34억
- 담양군 봉산면 대지 10692㎡ 다가구·빌라·창고 적합 12억5천

상가건물

- 광산군 선암동 호남대부근 대로면 대지 822㎡ 건평 344㎡ 18억
- 유동 모빌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남구 월산동 신축중인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 상가, 2층 원룸과 투룸, 3층 안집 살면서 임대생활적합 5억6천
- 주월동 우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 유동 2층식당건물 대지 598㎡ 건평 334㎡ 건물 임대좋은 9억6천

급매

- 남구 송하동 산 22556㎡ 대물담보용 최적 감정 2억5천, 매도 1억천
- 영암 산호읍 용당리 전 4628㎡ 공시가 2억 3천 매도 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싼! 입야 전 답

바로 삽니다!
오 천 개발
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